

자기소개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 (11.4.6 중앙일보)

스펙(spec)이 화려하지 않거나 유별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이 많다. 하지만 희망 전공과 연관되는 교내 활동이나 자기개발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엮으면 얼마든지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다. 고교 생활을 찬찬히 돌아보며 충분히 고민한 뒤 활동 동기와 과정, 결과와 그것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골고루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하는 학과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지도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은 지원동기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걱정이 많다. 고려대 배성한 입학사정관은 “초·중·고 전 과정 동안 한 학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진로에 대해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 해당 전공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뭔지 개연성 있게 풀어내라”고 조언했다. 이때 지원 전공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초점

자기소개서에 쓸 활동을 고를 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컸던 것을 고르면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시키면 더 좋다. 연세대 장수정 입학사정관은 “겉으로 보이는 데만 신경을 쓴 나머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보다는 화려해 보이는 대외적 실적만을 선택해 쓰는 학생들이 있다”며 “그런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상투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초·중학교 생활이나 해외봉사활동, 교환학생 경험 등은 주된 평가요소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기억하자.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들어 써야 하지만 단순 나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대표 내용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례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이때 여러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 하나를 뽑아내야 한다. 자신의 활동 내용과 경험을 묘사한 것만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분량을 할애하자. 글을 쓸 때 마음속으로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뇌자.

글 솜씨가 빼어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자. ‘뚝배기보다 장맛’이란 말처럼 진실성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좀 더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고액을 들여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실제로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도 화려하게 포장하면 오히려 면접에서 사실 확인차 하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사자성어나 전문 용어, 미사여구의 남발은 읽는 사람에게 멋진 인상보다는 감흥을 주지 못하는 언어의 나열로 다가올 뿐이다. 화려하기만 한 자기소개서의 역효과다. 인터넷 검색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 갖다 붙여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컨설팅업체를 찾아갈까 고민할 시간에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되돌아보자. 진심은 통한다. 학생만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 있는 자기소개서야말로 입학사정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색깔 있는 무기다.

고3 김창현양이 쓴 실제 자기소개서와 입학사정관들의 조언 (※지원학과: 식품공학과)

1.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500자).

가족 모두 활기차고 긍정적이라 제 성격도 활기차고 사교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 회장과 부회장이 많이 하고 조를 짜서 과제를 할 때도 주도적으로 계획을 잡고 과제를 실행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최선을의 결과가 나오게 했습니다. 중학생 때도 체육대회 때 적극적으로 나서 팀을 짜 우승을 했고, 축제 때는 반 친구들과 협동해 바자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교 1학년 2학기, 2학년 1-2학기 때 계속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공부가 어려워지자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 열정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공부가 지루해지면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학원을 안 다니기에 하루에 해야 할 공부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공부 스타일이 비슷한 친구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같은 문제집을 풀고,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만나 틀린 문제를 함께 해결했습니다. 소홀했던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며 제 부족한 점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민속원 입학사정관의 평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성장 과정을 제시한 점은 좋게 평가될 수 있다. 내용들이 단순히 나열돼 있는데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나머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해라. 삶의 역사를 읊을 필요는 없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성격이 최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면 좋다.

2. 지원동기를 쓰고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세요(500자).

요즘 들어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식료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들이나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 군것질거리들에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 큰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그런 음식들을 기피하는 것을 보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물에 이물질은 어떻게 사다가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 식품위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평소에 간식으로 먹는 과자 같은 것들에는 무슨 성분들이 있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 모두 안전한 것인지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 부모님과 같이 대학의 학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식품공학과라는 학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식품공학과에 대한 소개와 전망들을 살펴 보고 나니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식품과 관련된 책을 보거나 음식점들의 위생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 또는 건강식품에 관한 TV프로그램 등을 시청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진학을 위한 성적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연세대 장수정 입학사정관의 평가 문항이 요구하는 두 가지 중 '지원 분야를 위한 노력과 준비' 부분은 단 두 문장이다. 문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 기본적인 맞춤법에 주의하고 경어체나 반말체 중 하나로 선택해 일관되게 써라. 학과 지원동기를 적성과 관련해 쓰고, 자신의 노력으로 제시된 활동을 TV 시청이나 책 읽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요즘 들어'나 '문득'과 같은 부사어는 전공 결정에 있어 즉흥적인 선택을 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단어의 느낌과 인상도 세심히 고려해라.

3.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500자).

아직 인터넷이나 관련 대학 사이트에서 본 정보들뿐이어서 자세히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식품공학과에 입학한 후에는 과와 관련된 내용도 공부하고 싶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능을 위주로 한 영어보다는 토익이나 영어회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과와 관련된 학업으로는 식품위생학이나 인체의 건강과 관련된 영역을 좀 더 깊숙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 후에 식품 관련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곳에서 연구를 하거나 처음에는 식품 관련 중소기업에서 연구직을 맡아 실력과 경력을 쌓은 후에 대기업 식품회사나 제과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고려대 배성한 입학사정관의 평가 진로나 전공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학업-진로계획은 대학 지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문항에 비해 내용도 매우 평범하고 분량도 적다.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연세대 장수정 입학사정관의 평가 이 문항에서는 전공과 진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전공 공부 말고도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썼는데 그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목적과 동기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들어 밝혀 써라.

4.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교내·외 활동의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세요(500자).

고등학교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천문과학동아리 활동입니다. 축제 때 우유와 연유, 생크림을 잘 섞은 후 액체 질소를 넣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과자를 종이컵에 담고 액체의 액체 질소를 넣어 얼음과자를 만들어 입에 넣으면 김이 나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 시간에 탕수육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수행평가였지만 평소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탕수육을 만들 때 소스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돼지고기를 튀길 때,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완성할 때까지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재료를 손질하고 난 후의 남은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이나 간을 볼 때 수저로 손등에 묻힌 후 간을 봐야 하는 것, 요리를 다하고 난 뒤 뒷정리 등 요리할 때 지켜야 하는 주변 위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고려대 배성한 입학사정관의 평가 식품공학과를 의식해서인지 정작 천문동아리 활동 과정과 결과, 느낀 점이 생략돼 있고 식품과 관련된 단편적인 활동만 나열했다. 길게 묘사된 탕수육을 만드는 과정보다 무엇을 느꼈는지 자세히 기술하는 게 좋다. 지원 학과와 관련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경험한 활동의 과정과 결과, 느낀 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성숙돼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5. 미래의 목표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역경을 극복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500자).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언어영역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중앙일보를 보시고 중앙일보 공부의 신 프로젝트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게 어떡냐고 하셨습니다. 전 도움이 될 것 같아 바로 신청을 했고 정말 기쁘게도 최종 선발돼 멘토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에게 언어가 부족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니 마침 언니도 언어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랐었습니다. 그때부터 언니와 특정 문제집을 정해 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메신저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사고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3개월 동안 한 결과 4등급이었던 언어 성적을 2등급까지 올렸습니다. 점수가 오르면 평소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풀기를 꺼렸던 문제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대 민속원 입학사정관의 평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점이 인상적이다. 성적 향상 경험이 대학 입학 이후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연결시키면 더 좋을 듯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역경 극복 과정에 성적 향상을 쓴다.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